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09월 15일 (금)

江原日報

종합

與 도의원들 “대선공작 진상 밝혀낼 것”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선 공작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도민을 호도하지 말고,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매진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대선 공작 대(對)국민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당 8개 당협과 공동 대처해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전을 벌이며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정하(원주갑)

국민의힘 소속 42명 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규탄대회 민주당 “13분짜리 국면전환용 쇼로 도민을 호도하지 말라”

도당위원장과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 의장, 박찬홍 도의회 원내대표, 김기흥·한창수 부의장을 비롯해 당 소속 도의원 42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사에서 “대장동 몸통 바뀌치기를 시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맞먹는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민주당은 대선 공작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부패한 언론은 허위보도 진상을 공개하라. 가짜뉴스로 대선 공작을 주도한 무리를 색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일로 인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잘못될 뻔했다”며 “다시는 조작과 사기로 국민들의 표심을 훔쳐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의원들 모두와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잘못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8석을 반드시 석권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국민의힘 도의원 모두가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 회기 중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달랑 13분짜리 국면전환용 ‘쇼’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불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관되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제안했다”며 “대장동 의혹 진상을 밝힌다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대한 진상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박찬홍 도의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14일 춘천 도당사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영

여 “대장동 몸통 밝혀야” vs 야 “국면전환용 쇼”

국힘·민주 도당 ‘허위 인터뷰’ 논쟁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3분짜리 국면전환용 쇼”라며 맞받아쳤다.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권

혁열 도의장, 박찬홍 도의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4일 춘천 도당사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몸통 바뀌치기를 시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맞먹는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작 진상규명을 위해 인터뷰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우영)은 ‘국민의힘은 달랑 13분짜리 국면전환용 쇼로 도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때 대장동 사업의 밀착을 대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대검 중수부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언론이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년 09월 15일 (금)

江原日報

스포츠 23면

6천여명 생활체육 동호인 양구서 열전



제31회 강원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오늘 개막

강원도 생활체육 동호인의 대축제인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가 15일 열전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양구군체육회와 도회원종목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뛰어난 청춘양구, 피아라 강원체육'의 슬로건 하에 17일까지 사흘간 양구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양구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다. 육상·수영·축구·야구·테니스·농구·탁구 등 22개의 정식종목과 태권도·그라운드골프·파

사흘간 총26개 종목서 맞대결

최고령 89세·최연소 8세 참가

개회식서 영상상영·공연 진행

크골프 등 3개의 시범종목, 전시 종목인 드론 등 총 26개 종목에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 7,866명(임원 1,845명, 선수 6,021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는 고성군 게이트볼 대표 1934년생 김춘옥(89)씨이며, 화천군 국학기공 대표인 2015년생 문채린(8)양이 최연소 선수로 참가한다.

15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장과 시·군 선수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 식전 행사로 양구군 홍보영상 상영과 남성 5중창 그룹 INVITO의 팝페라 공연, 혼성 댄스그룹 LJ댄스의 단체 군무 공연이 열려 개막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어 18개 시·군 선수단 입장, 윤종호 양구군체육회장의 개회 선언, 서흥원 군수의 환영사 및 축사가 진

행되고, 춘천 청춘합창단이 강원자치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래를 합창한다. 가수 초이는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개회식이 끝난 뒤 오후 6시40분부터는 박지현, 양지은, 진혜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양구군 최초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대회를 준비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래석·권순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인물 21면

"사회복지 최전선, 기후위기 속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들자"

정선서 도사회복지사대회

취약층 보호 선제대응 다짐

안계선·장형만 관장 '특별상'

강원지역 사회복지사들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찾아나가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영호)는 14일 정선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에서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막했다.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도내 사회복지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경희 도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영호)는 1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에서 '기후위기와 재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주제로 제22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1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기후위기와 재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7회 강원사회복지사 특별상

은 안계선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과 장형만 태백시노인복지관장이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해 온 사회복지사를 선정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선배 사회복지사에게 전하는 공로패는 최승준 전 도사회복지사협회 강릉시지회장이 받았다.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 분야 공무원 등 18명에게도 유공자 표창이 전달됐다.

회원들의 추천으로 올해 처음 시상한 '인맥왕'에는 신혜경 태백시노인복지센터 팀장, 엄정호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뽑혔다. 협회의 핵심 비전인 '연대'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한 복지사를 선정하는 상이다. 도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유급병가제' 도입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최근 극단적 기상이변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파괴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미리 전한 축사를 통해 "복지사 여러분의 권익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심하게 살피겠다"고, 권혁열 도의장은 "사회복지사의 행복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고 격려했다. 김여진

▶유공자 표창명단은 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2면

한국여성수련원장

함영이 후보 '적격'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 '적격' 판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함영이(사진)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순옥)는 14일 제322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함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미희 부위원장은 경과보



고서를 통해 "젠더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젠더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해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다수위원들은 후보자의 비전 등을 통해 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설화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사진)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함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언론사, 금융기관 및 정당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과 답변을 종합할 때 미래 비전과 경영철학 측면에서 일관된 의지와 적극적인 의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후보자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대장 미등재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실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 등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현정기자

춘천MBC

2023년 09월 14일 (목)

강원

함영이 후보자 원장직 수행 적격 판단

강원도의회가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의 원장직 수행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가 오랜 기간 언론사와 정당,
금융기관에서 활동해 경륜이 있고
원장으로 직무 수행 능력도
가지고 있다며 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전이
이상적이라는 지적과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농지를 농지 대장에 올리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강원도의회,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 '적격' 판단



지난 11일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준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함영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함 후보자가 오랜 기간 언론사, 금융기관, 정당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점 등을 들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함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과 관련해 이상적인 청사진 제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경과 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했다.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농지 대장 미등재 토지에 대한 조속한 임대차계약과 농지 대장 등재로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 등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위는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낸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성단체가 남혐(남자 혐오)를 조장한다'는 등 여성단체의 활동과 이념 등에 관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는 "낮은 성 인지 감수성과 여성단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은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conanys@yna.co.kr

누리일보, 정도일보 등 48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포토뉴스] 도의회 치수연구회 중간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회장:윤길로) 회원들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한강수계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인물



한강수계 오염발생현황 연구용역 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투나잇, 시사투데이 등 48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3면

건축재정 기조 속 합리적 재원 배분 총력

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소통 간담회
“민생·소상공인 예산은 지장없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를 열고 강원자치도의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내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2024년도 강원자치도 예산안의 기초편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을 공유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는 등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강원자치도가 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도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

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 기조를 유지하지만 민생 관련 복지 예산 편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선순환 경제활동이 되도록 심사하겠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3면



“공정한 예산 심사 다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도 집행부와 소통·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도 집행부 내년 예산편성 방향 논의

효율화·감축안 마련 등 선제 조치

세수감소현실화속에 8기 도정 차원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14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와 도 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비공개간담회를 가졌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고,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교감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에 따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하고 있다.

도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

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과 관련, 도 예산과는 각 실국을 대상으로 도 자체 사업에 대한 감축안과 함께 최근 3년간 추진된 영역과 관련해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예산허리띠 졸라매기에 바짝 나섰다.

세입 전망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감축안 마련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감소액이 1분기 890억원에서 2분기 149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세 세수 핑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세 수입 또한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세와 연동된 강원도 몫 지방교부액 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도내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될 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9월 14일 (목)

종합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30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1회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인물동정 10면



정재웅 도
의회 사회
문화위원
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1회 다문화
가족한마음체육대회
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용문~홍천철도 조기 착공 꾀걸음

18일 국토장관 면담 GTX 등 건의

용문~홍천 철도, GTX-B 춘천 연장 등 강원북부권 철도사업 조기 추진이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김진태 지사는 오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김 지사는 용문~홍천 철도를 비롯해 GTX-B 춘천 연장을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이달 말까지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넘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기 전에 홍천군 등 각 시·군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며 “해당 설명회에서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추진 일정 등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2면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소요예산 대비 경제성 편익(B/C)에서 0.35~0.4 정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기준 1.0을 넘겨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도 관계자는 “양평군과 노선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2면

강원-부산 엑스포 서로 돕는다

김 지사-박 시장 오늘 업무협약식

양 지역 행사 성공 개최·유치 협력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와 관련, 부산시와 손을 맞잡는다. 강원도는 부산시가 도전에 나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돕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15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강원도와 부산시는 각각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30 부산세계박

람회의 개최·유치를 앞두고 있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 지역의 국제행사 성공 개최 및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 주민 참여 독려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막식은 오는 22일 고성에서 개최된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신경쓰는 현안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며 “산림엑스포 시설과 프로그램, 입장객 목표 등을 연일 체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산림엑스포에 손님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2023년 09월 14일 (목)



인물

강원교육청, 2026년까지 마이스터고 4곳 개교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이석종 기자

항공·세무·산림·국방 전문 인력 양성 마이스터고 추진

- 올해 한국항공고 개교에 이어, 2026년까지 마이스터고 4개교 개교 예정
- 태백기공, 태백 황지정산고, 철원 김화고, 인제 신남고...마이스터고로 전환
- 한국항공고 9월 12일 교명식 제막식 갖고 본격 출범...올해 신입생 모집 전형

■ 프로그램 : 춘천 BBS '아침세상 강원'

(춘천 100.1, 강릉 104.3, 속초 93.5, 양양 97.1MHz)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8시 30분

■ 출연 : 강원교육청 이재철 직업교육담당 장학사

■ 진행 : 이석종 기자



■ 이석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살리고, 직업계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에 맞는 직업계고를 조성해 타 시도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복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재철 강원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장학님 안녕하세요?

■ 이재철 장학사 :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 이재철입니다.

■ 이석종 기자 :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미 일부 학교는 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이스터고는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주시고, 마이스터고와 일반 직업계고와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요?

■ 이재철 장학사 : 먼저 직업계고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세 가지 유형을 합쳐서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31개의 직업계고가 있는데요. 마이스터고는 3교, 특성화고는 20교, 종합고등학교는 8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이스터고를 살펴보면, 마이스터고의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또한 과학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인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지정되는데 현재 전국에는 54개 학교가 있고, 그 중에 3개 학교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원주에 의료 마이스터고, 삼척에 에너지 마이스터고, 영월에 소방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 이석종 기자 :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왜 강원형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 이재철 장학사 : 지금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하곤 모두 인구가 10만 이하의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인구가 5만이 되지 않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문어발식, 백화점식 학교로 운영하는 것보다 교명만 들어봐도 딱~!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선명하고 전문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계고는 인기가 없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강원도 직업계고 중 타 시도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는 인기 학교를 혹시 아실까요?

■ 이석종 기자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업계고가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 이재철 장학사 :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있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와 춘천시 서면에 있는 강원애니고입니다. 소방마이스터고는 전교생 205명 중 115명이 강원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왔구요, 그 비율이 무려 56%입니다. 강원애니고는 전교생 175명 중 92명으로 53%가 타시도에서 전입해 왔고, 입학 경쟁률도 2년 연속 3대 1이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는 인구소멸지역에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중에 기존의 학과를 모두 통폐합하고 하나의 전문화된 학과로 재탄생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항공고, 국방고, 산림고, 세무금융고 등 유구한 역사의 교명까지 바꾸는 대규모 재구조화에 성공한 학교를 집중지원해서 혁신의 롤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 이석종 기자 :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4곳 정도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들입니까?

■ 이재철 장학사 : 먼저, 태백기계공고를 한국항공고로 전환하고 내년도에 첫 번째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철원군의 김화공업고를 가칭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고 2026년에 첫 번째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제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인 신남고를 가칭 산림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에 황지정보산업고를 개편해서 가칭 세무금융고등학교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항공고 외 나머지 3개교는 현재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모두 기숙사 신축 등 제반 시설을 확보한 후 2026년에 첫 번째 신입생이 입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석종 기자 : 그러면,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는 각 학교들의 면면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백기계공고는 가장 먼저 한국항공고로 전환이 되는데요... 어제(12일) 출범식과 교명식 제막식이 있었죠?

■ 이재철 장학사 : 네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님, 심재성 태백교육장님, 이상호 태백시장님, 강원도의회와 태백시의회의 의원님들, 태백기계공고 동문들과 학부모님, 학생 및 교사 대표 등 1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태백 한국항공고 교명식/사진제공=강원교육청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원대한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한국항공고등학교 개교 과정과 각종 항공기가 비치된 교정을 순회하였습니다.
기존 체제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학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명석, 교가, 상징물, 마스코트 등을 전면 교체하고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태백 한국항공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강원교육청

특히 한국항공고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최대의 격납고와 최다의 항공기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이석종 기자 : 그러면 앞으로 한국항공고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이재철 장학사 :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4일동안 한국항공고 첫 번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에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때 모집정원의 1.5배수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27일 금요일에 제2차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요. 2차 전형은 직업 기초능력평가시험과 면접, 그리고 인적성검사 3가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원도 직업계고 최초로 영어면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고, 모든 매뉴얼이 영어를 기반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항공고"라고 검색하시면 랜딩페이지가 나오는데 입학요강부터 문의전화번호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이석종 기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김화공고는 국방과학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군과 관련된 학교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재철 장학사 : 혹시 앵커님은 우리나라가 군사 무기수출 8대 강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이석종 기자 :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수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몇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재철 장학사 : 70년 전에는 전차 한 대 없었던 나라가 K방산으로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탄약부터 k9자주포, 유도로켓까지 방산 매출이 13조를 넘었고, 10년새 두배로 성장했습니다.
즉, 방위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 산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방고라고 하니 학생들을 전부 군대 보내고, 부사관으로만 양성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철원에 신설되는 국방과학고는 첨단무기를 수출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전공과 연계한 우수 대학에도 진학시킬 계획입니다.
예컨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도 진학시켜 미래 국방산업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 이석종 기자 : 알겠습니다. 또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태백 황지정산고인데요.. 이 학교는 세무금융고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재철 장학사 : 세무금융고등학교도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국내 굴지의 은행, 증권사, 세무 기관 등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준비하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취득하기가 매우 힘든 자격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금융 자격증과 부동산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다면 취업할 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교부해서 실습실을 다시 정비하고 기숙사 신축 준비를 한 후 26년에 첫 번째 신입생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석종 기자 : 그리고 인제 신남고는 산림과학고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역시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게 됩니까?

■ 이재철 장학사 : 당장 다음주 22일부터 세계산림엑스포가 강원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즉, 강원도는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하는 산림자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우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산림 전문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또한 산림 마이스터고는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인제 신남고등학교는 순수 일반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실습동과 기숙사 모두 새롭게 신축해야 합니다. 일단은 2026년에 첫 번째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산림과학고는 크게 3가지 인력양성 트랙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로 산림청과 같은 공무원, 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목재/펄프/제지 관련 대기업, 산림 중요종자 연구원, 숲치유 및 생태환경 활동가 등 최고의 산림전문가 육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과 연계된 국내 최상위권 대학, 예컨대 서울대학교 산림과, 강원대학교 산림과에 진학해 산림분야 최고의 연구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 이석종 기자 : 한가지 궁금한게요... 이렇게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학사 과정을 배우게 되는건지, 아니면 마이스터고교내 예를들면 항공정비시스템 과를 선택한 학생들만 관련 수업을 받게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 이재철 장학사 :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는 교명을 그대로 반영한 단일 학과 체제로 개편됩니다. 항공고는 항공정비과, 국방고는 국방시스템과, 산림고는 산림자원과, 세무고는 세무금융과 등 단일학과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집중교육을 받습니다. 학교가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명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석종 기자 : 아울러서, 기존의 특성화고 예를들면, 춘천기계공고에 부서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특성화고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이재철 장학사 : 일단 교명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화공업고 아닌 국방고등학교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서, 학교의 특성과, 특정학생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최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설환경과 교육과정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대학으로 비교를 하자면, 특정 대학의 ROTC 교육과정과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느낌일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도내 지자체 관계자 분들에게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인제 신남고와 같은 사례를 꼭~~ 주목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학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이석종 기자 : 지금까지 이재철 강원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였습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2023년 09월 15일 (금)

江原日報

종합 01면

태백 강원관광대 폐교 초읽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교육부 편입학 지원 준비

‘지역대 존립 위기’ 가속화

태백의 강원관광대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강원관광대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법에 따라 학생들의 편입학 등 지원을 준비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폐교는 2018년 2월 교육부에 의해 폐교된 동해 한중대 이후 5년여 만이다.

도내 대학가와 지역사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관련기사 20면

강원관광대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의 사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음(중지)’을 알려드린다’고 공고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난이 심각하고 그 여파로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결

손이 갈수록 커져 이같이 신입생 모집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미 2021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랐던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골프산업과, 호텔카지노관광과, 호텔관광과 등 5개 학과를 폐과한 바 있다.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강원관광대는 1995년 3월 태성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졸업생 수가 8,600명에 달하는 등 강원 남부 폐과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재학생은 한때 1,200명에 달했으나 구조조정으로 간호학과만 운영하면서 현재는 학생 396명에, 교직원 30여명 선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강원관광대 이외에도 많은 대학이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는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에 기름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강원관광대로부터 폐교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며, 신청 이후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희·박서화기자

2023년 09월 15일 (금)

江原日報

지역 20면

태백 주민 “강원 남부 인재육성 산실 사라질 위기”

강원관광대 내년 신입생 모집 중단

태백시 입학생 장학금 지원 물거품

시의회 “지원금 89억 쏟아부었는데”

【태백】태백 지역사회가 강원관광대의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소식에 강원남부 인재육성의 산실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관광대는 2021년에도 신입생 모집난으로 전체 6개 학과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사

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골프산업과, 호텔카지노관광과, 호텔관광과 등 5개 학과를 폐과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특히 간호학과는 3, 4년 전

만 해도 전국적으로 인기 학과로 분류됐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호사가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각 대학마다 보건계열 학과가 크게 늘어나 학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도 원인이 됐다.

학교 측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고교를 찾아 입학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간호조무사 가운데 신입생을 모집, 비대면 수업

을 진행하는 등 돌파구를 찾았으나 이미저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신입생 총원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98명이다. 한때 1,200명에 달하던 재학생은 구조조정으로 간호학과만 운영하면서 현재는 396명, 교직원 30여명이다.

강원관광대는 2021년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며 지역사회에서 학교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강원관광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학교 존속 대신 폐지가 1순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태백시는 올해 강원관광대에 장학금 8억원, 대학발전육성기금 3억원 등 총 1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등을 검토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허탈해하고 있다.

강원관광대가 자진 폐지를 선택할 경우 2024년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폐과와 함께 지역경기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경숙 태백시의회 부의장은 “태백시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든 강원관광대를 살려보기 위해 89억원 넘는 장학금과 대학발전육성사업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해 상실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kw635@kwnews.co.kr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진행 중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본 공사는 시작도 못 한 채 수년째 방치되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혈값 매각 의혹’

지경관광단지 잇단 특혜 논란

속보=양양군이 지경관광단지에 포함된 군유지를 해당 관광지 조성 사업(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에 나선 대기업에 평당 62만원에 매각한 후 수년 새 땅값이 4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앞서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양군이 소유한 토지까지 혈값에 대기업에 넘겨줬지만 군과 사업자 측이 협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양군은 2017년부터 대기업 LF가 개발 중인 지경관광지 내 군유지 8만2,000여㎡를 156억원에 매각했다. 평당 가격은 62만원 수준이다. 해당 부지에는 도유지와 사유지 등도 포함돼 있었으나 양양군이 이를 모두 매입한 후 LF에 되팔았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 이익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매각 당시 사업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5층 규모로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20층 규모로 변경돼 사업자는 더 큰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됐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사대표는 “사업자가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지경관광지의 땅은 현재 평당가가 최소 2,000만~2,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안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혈값으로 매입한 해당 부지에서 얻는 이윤 일부를 양양군에 환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남면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

사를 운영한 B 대표는 “인근 인구해변과 죽도해변의 평당 땅값이 최대 4,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확한 상승값 예측은 어렵지만 양양군으로부터 평당 6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분명히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이 LF 측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안과 맞닿은 기존 해안도로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길이 1km, 폭 10m의 관광단지 진입로를 새로 조성했다. LF가 추진 중인 호텔, 아웃렛과 직접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국비 10억원, 강원도비 3억원, 군비 7억3,700만원 등 총 20억3,700만원이 들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

역,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등도 양양군이 직접 시행했다.

2012년 사업자 측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5월4일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완료되며 양양군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토지 보상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모두 거쳐서 매각했다”며 “매각 당시에는 5층이었던 사업계획이 20층으로 변경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기영·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종합 01면

춘천 캠프페이지 활용안 나오자마자 발목잡기 논란

최근 혁신지구 시범 후보지 선정
공원·숙박 조성 첨단산업 유치
시민단체 “부동산개발 전략” 비판
인근주민 “사업 발목 잡지않을 것”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이 또 다시 원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부지에 문화공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지역 주민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이나 보존이냐는 대립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캠프페이지는 춘천시 근화동 일대 50여만㎡에 이르는 부지로 춘천시는 2012년부터 17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국방부 소유였던 캠프페이지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 2016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곳은 미군이 철수한 지 20년 가까이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선 7기 들어서야 캠프페이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토양오염과 문화재발굴 등으로 멈춰선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캠프페이지의 운명도 바뀔 전망이다. 춘천시는 문화공원과 보행네트워크, 숙박시설, 첨단산업, 생

활SOC등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해당 활용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된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캠프페이지는 ‘난개발로 땅을 망치지 말고 공원으로 미래에게 부지활용을 넘기자’는 명제가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캠프페이지는 현재까지도 문화재 발굴이 진행 중인 데다 사업 계획대로라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불가피해 공공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캠프페이지 인근의 근화동 주민들은 이들 시민단체에 반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4일 오후 이와 관련한 회의도 가졌다. 박근홍 근화동 통장협의회장은 이날 “캠프페이지가 흥물스럽게 지내는 동안 도청사, 시청사, 춘천법조타운 유치까지 다 놓쳐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미군 기지가 주둔할 동안 소음 등의 피해를 본 것은 이 동네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캠프페이지를 활성화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활용안을 보니 공원, 녹지용지도 들어가 있었다. 주민이 바라던 것을 반영하려던 참에 말도 안되는 여론화를 지속해 발목을 잡는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사설/칼럼 19면

강릉 수돗물 냄새 재발 막아야

-오봉저수지 수온 상승 원인, 장단기 해결책 필요

강릉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흙냄새와 곰팡내 등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냄새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서 발생해 우려가 큼니다. 냄새는 저수지 수온 상승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돼, 매년 고질적인 현상으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돗물 냄새는 주민 생활 불편과 함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단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1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설거지와 빨래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에 흙냄새가 나서 쌀 씻을 때 생수로 행궤야 할 지경이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빨래를 해도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돗물에 이상을 감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수온 상승으로 조류 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이 검출돼 냄새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질은 인체에 무해

해 음용에는 문제가 없고,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3분 이상 끓여 먹으면 맛,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수와 샤워, 빨래 등 일상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냄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릉시는 강화된 정수처리 작업을 통해 물 공급을 정상화했고, 기존 수도관에 남아있는 맛·냄새 물질이 포함된 물이 다 빠져나가는 데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수온 상승이 냄새의 주요인이라면 날씨 변수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정수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돗물 불신이 확산하면, 관광도시 강릉의 위상에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5일 (금)

사설/칼럼 25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 성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 코리아는 오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내년 도내에서는 최초로 정원 50명의 AI반도체 학부를 개설한다. 또 강원자치도는 내년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AI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인텔은 빅데이터와 AI기반 교육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고 디지털헬스기업 유치에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의료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심을 갖고 협약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4개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토와 기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협약은 긍정적이다. 특히 도와 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이번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전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

원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너도나도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원인들의 꿈과 희망이 모아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반도체 산업은 신성장 고부가 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주요 자산이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 들어 정부가 경기 용인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주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도와 원주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에 이번 업무협약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 협약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도와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코리아는 협약 내용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앞으로 실무자 간 상호 업무 이해와 정보 교류가 원활해야 한다. 4개 기관 간에 합동 워크숍, 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하는 이유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15일 (금)

사설/칼럼 19면

낮은 직급 종사자 직무만족도 높이기

-사회복지사근속휴가제 불과 6%사용,근본 개선책 나와야

사회복지주간(9월 7~13일)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대회 등을 열어 관심을 환기하지만, 복지 현장 최일선의 근본적인 업무환경 개선 이슈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상식과 공연, 강연 등 규모 있는 대회가 마련되고 있긴 하나 일회성 행사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병행해 올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회복지분야 종사원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 병폐 개선 관련 세미나, 정책포럼, 워크숍, 심층 사례 발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료와 업무과중 등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6월 도사회복지사협회 원주시지회는 원주시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달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원의 직무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원 노력을 동해시에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열악한 근무환경은 복지의 질 하락과 직결돼 개선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더욱이 도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5년 이상 근속 종사자 유급휴가제가 걸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민일보 9월 13일자 '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5000명 중 305명 사용' 보도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유급

휴가제를 시행했으나 고작 6%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계는 이미 이 잦은데 근무처를 바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야심 차게 출발한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도행정과 사회복지계는 진지하게 의논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직무환경이 좋을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일선 현장 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료가 낮은 것은 물론 운영책임자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갑질 사례 호소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회복지사 범행의 경우 사건 발생시설 책임자가 형사조치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온 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 일선 직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야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요받아 온 낮은 직급 종사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려면 운영 책임자부터 솔선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15일 (금)

사설/칼럼 25면

첨단의료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로 손색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을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신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을 적용해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구참여기업은 정부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자치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전략사업의 특화단지 조성 추진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이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전국 2곳을 첫 특구로 지정한다. 첫 선정 이후 2027년까지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혁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공모대상에서 빠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북은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을 후보지로 한 첨단바이오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산도 한국선급, 케이알헬라스(KRHELLAS)와 함께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을 위한 4차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로봇산업을 테마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은 기존 배터리특구 종료를 앞두고 그 연장선으로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를 준비 중이다.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을 앞세워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해 달라고 도의회까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국 34개 특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국내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달러에 달했다. 또 38개 기업을 신규 유치했으며 189명

도 공모신청서 제출...정부 내달 2곳 첫 지정
디지털헬스·정밀의료산업 경쟁력 확보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을 신규 고용했다. 올 8월에는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세계 각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정밀의료 특구도 2021년 8월 사업 시작 이후 2년간 3개 기업을 유치하고 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도 특구 안에서조차 각종 규제가 적용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다. 이에 규제로 인해 더 이상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혁신특구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정부가 앞장서 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 강원자치도에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할 때다.